예술의 전당 명품공연 영상으로 만나요

국립현대무용단의 인기작 '스윙'이 오는 20일 오후 7시 ACC 극장 화면에 오른다. <ACC 제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2월까지 'SAC on Screen' 17편 무료 상영

20일, 국립현대무용단 '스윙'…오페라 '박하사탕' 발레 '라바야데르' 등

예술의 전당의 명품 공연 영상으로 즐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ACC)이 국내 우수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ACC 수요극장'을 운영한다. 예술의 전당 우수 공연(17편)을 현장감 넘치는 영상으로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20일부터 12월까지(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 ACC 극장3에서 펼쳐진다.

특히 ACC 수요극장은 예술의 전당 영상사업 '에스에이시온 스크린(SAC on Screen)'과 연계해 운영되며 올해 10년차를 맞은 'SAC on Screen'은 최상의 영상과 음향을 구현하는 공연 영상화 사업이다.

첫 작품은 안상수 안무가의 연출이 돋보이는 국립현대무용단 인기작 '스윙'. 오는 20일 오후 7시 극장 화면에 오르는 작품은 스웨덴 스윙 재즈밴드의 라이브 연주와 밀도 있는 안무 구성이 돋보인다.

오는 5월 4일엔 예술의 전당 기획 음악극 '봉장취'를 만날 수 있다. 꿈을 찾아 떠나는 새들의 이야기를 경쾌한 국악으로 풀어낸 이색적인 작품이다.

5·18 민주화운동 주간에는 지역출신의 대표 극작가인 조광화의 2021년 광주시립오페라단 정기공연 오페라 '박하사탕'이 특별 상영된다. 6월 유니버설 발레단의 '라바야데르', 7월 예술의 전당 기획 연극 '보물섬'을 볼 수 있다.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작품도 만난다. 8월에는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을 통해 독립운동가 안중근의 삶과 애국정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이어 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신계계로부터'(9월), 대한민국 대표 뮤지컬 '명성황후'(10월),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의 신작 '윤보선 고택 살롱 콘서트'(11월), 국립발레단의 영원한 명작 '호두까기 인형'(12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17편이 관객들을 만난다.

ACC는 관람 환경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극장3에 극장형 영사 환경을 구축해 예술영화 등을 상영하고 있다.

전석 무료이며 ACC 누리집과 현장 예매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한편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삭온스크린은 오는 6월과 9월 두차례 진행된다. 6월에는 지난해 선보였던 뮤지컬 '명성황후'를 상영할 예정이며, 9월에는 예술의 전당이 교육 목적으로 제작했던 '굿모닝 독도'를 영상으로 상영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조미란 작 '여유를 바라보다'

'다시 시작하다'

광주미술협회, 청년작가 기획전

25일까지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올해 새롭게 출발한 광주미술협회(회장 박광구)가 청년작가들을 위한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 지역 화단을 이끌 젊은 작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미협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작가들을 격려하고 상대적으로 미협 활동이 저조한 청년작가들을 협회로 적극 유입하기 위한 복안이기도 하다.

광주미술협회 청년작가 기획전이 오는 25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열린다.

'to start anew start-다시 시작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만 45세 이하의 청년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해 지역 미술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창작지원 전시프로그램이다.

이번 전시에는 회화, 판화, 조소, 서예, 미디어 등 시각예술 전분야에서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김영일·김유빈·명현철·박정일·박환숙·성유진·송유진·양병구·염순영·이두환·장미란·장원석·정재석·조미란·조민서·조선아·조숙·허진·홍지희 등 20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첫 행사로 그룹전 형식으로 전시회를 개최한 미협은 내년부터는 청년작가 기획전을 개최한 후 1명을 선정 '청년작가상'을 시상하고 5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수상자에게는 미협이 위탁운영하는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초대전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광구 광주미협 회장은 "회장 취임 후 미술협회에 청년작가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을 보고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분과위원회 위원들과 논의를 했다"며 "앞으로 청년작가들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지역 미술의 잠재성을 엿볼 수 있는 이번 기획전을 통해 많은 인재 배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색과 빛을 그리다'

우종미술관 소장품전, 7월 30일까지

샤갈·앤디 워홀·최쌍중·김훈·이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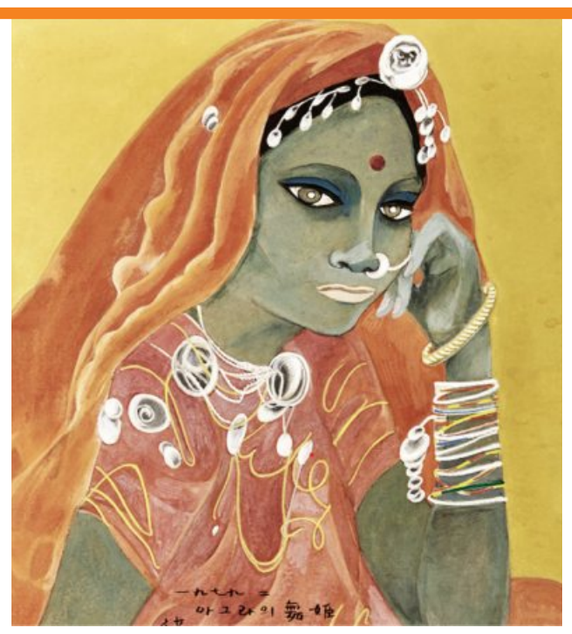
지난 2008년 개관한 우종미술관(관장 우영인·보성군 조성면 조성3길 338)은 보성 컨트리클럽에 자리하고 있다. 친환경기업 (주)와이엔텍 설립자 박용하 회장이 설립한 미술관은 국내·외를 아우르는 컬렉션을 갖추고 있다. 수준 높은 근·현대 회화 작품과 함께 목공예, 도자기를 비롯한 고미술품 등 모두 1500여점의 작품을 소장중이다.

2008년 10월 개관전시 '현대미술의 발자취'전을 시작으로 미술관은 매년 소장 작품전을 통해 다양한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우종미술관의 2022년 두 번째 소장품 기획전이 오는 7월30일까지 열린다.

'색과 빛을 그리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해외 작가로는 몽환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인 마르크 샤갈의 '사랑을 위한 스케치', 팝아트 작가로 유명한 앤디워홀의 실크스크린 작품 '마릴린 먼로'를 비롯해 말콤 몰리·잭슨 폴록·조지 클레망· 피터 알렉산더·앤런 존스·카렐 아펠·야마다 타로 등 전 세계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천경자 작 '아그라이 무희'

샤갈 작 '사랑을 위한 스케치'

국내 작가 작품으로는 이국적인 여인의 모습이 눈길을 끄는 천경자의 '아그라이 무희', 초록빛이 화면을 가득채운 아련한 느낌의 풍경을 만나는 이숙자의 '보리밭'을 비롯해 강연균·김훈·배상순·최쌍중·정충일·이대원·오수환·제여란 등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다.

전시작들은 빛과 색에 대한 다양한 예술적 시도와 탐구가 구현된 작품들로 우종미술관 컬렉션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빛과 색채는 회화에서 미적조형언어로서 기본적이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요소다. 빛의 방향, 빛의 밝고 어두움, 색채의 맑고 탁함, 다채로운 색채의 사용 등은 다양한 조형언어로서 역할을 한다.

또 빛과 색은 작품을 제작할 당시 예술가 자신의 심리 상태와 무의식이 발현되는 장치이기도 해 자신만의 개성적인 세계를 연출할 수 있다.

월~화요일 휴무. 관람시간 오전 10시30분~오후 5시. 문의 061-804-109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예술작은도서관 인문학강좌

21~22일 '님아…' 진모영 감독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 작은도서관의 올해 첫 상반기 인문학강좌가 문을 연다.

강사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진모영 감독. 진 감독은 오는 21일과 22일(10시부터 12시) 열리는 강좌에서 다큐멘터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 다큐멘터리들에 대해 소개한다. 특히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연출하는 모든 시간이 자신의 인생과 같다는 철학을 견지할 예정이다.

독립영화인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개봉 19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고 다큐멘터리 영화 사상 최초 480만 관객을 모으며 흥행 열풍을 일으켰다. 제21회 LA영화제 다큐멘터리 경쟁부문 대상, 2015 밀레니엄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제6회 한국영화기자협회 올해의 영화상 독립영화상 등을 수상했다. 이밖에 진 감독은 '올드마린보이', '님아: 여섯나라에서 만난 노부부 이야기'를 연출했다.

이번 강좌 수강인원은 10명 내외이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희망자는 21일까지 선착순 방문접수 또는 전화(062-670-7968)접수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채광자 대금 연주회 '회상'

21일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

대금연주자 채광자<사진>가 제692회 목요열린국악한마당(21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회상'이라는 주제로 연주회를 연다.

이날 무대에 오르는 대금연주자 채광자는 전남대 국악과를 졸업했고 조창훈·서용석씨 등을 사사했으며 현재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원, 대금연주단 여울림의 대표 등을 맡아 활동 중이다.

이번 연주회에서 채씨는 서용석류 대금산조를 다스름,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엇모리, 동살풀이 순으로 전 바탕을 연주한다.

서용석의 대금산조 가락은 한주환의 산조가락에 자신의 독창적인 가락을 더한 것으로 박종기, 한주환으로 이어지는 대금산조의 맥을 잇고 있다. 그의 가락은 남도음악 특유의 붙임새가 정확하고, 가락의 짜임새가 충실한 것이 특징이다.

서용석류 대금산조는 다양한 조의 변화와 짜임새 있는 가락으로 구성돼, 산조의 음악성을 충실히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음악이다.

특히 진양은 우조와 계면조로 바뀌는 조 변화의 묘미를 감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양만이 지닌 선율의 유장미가 잘 드러난다.

관람료 무료. 문의 062-350-4557.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